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비교

박정모¹ · 이숙정²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부교수¹, 적십자 간호대학 전임강사²

Comparison of Gender Stereotype between Female Nurs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Park, Jeong Mo¹ · Lee, Suk Jeong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²Full-time Lecture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fference in gender stereotype between female nurs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comparative study was done. The subjects were 300 nursing students and 114 humanities students who were se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08 to October 2008 using a constructive questionnaire with 30 questions, which was prepared for this study by modifying the instrument about gender stereotype developed by Kim.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ANCOVA, factor analysis and Chronbach's α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1) Of the six subcategories of gender stereotype, five were higher in the nursing students than in the humanities students, but occupational gender stereotype was not. 2) Age affected total, familiar, social, external, and intellectual gender stereotype. 3) Self-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ffected social gender stereotype. 4)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gender stereotype with controlling age, self-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the nursing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intellectual stereotype than the humanities students. **Conclusion:** Because female nursing students tended to show high gender stereotype, nursing educators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helping nursing students escape from gender stereotypes and increase their self-satisfaction.

Key Words : Gender identity, Personal satisfaction, Female, Studen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 경제적 발달과 더불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기회가 확대 되면서 성역할 또한 급속히 변화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을 차츰 변화시켰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성 고정관념이 강하게 지배되고 있는 곳으로서, 과거에 비하여 성 고정관념이 많이 변하긴 했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Kim, Byun, Mun, Park, & Hwang, 2007).

고정관념은 용어 자체에서 의미를 주듯이 경험하거나 지식으로 습득하기 이전에 이미 가지게 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성 고

주요어 : 성 고정관념, 자아만족, 전공만족, 여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uk Jeong,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98 Saemoonan-gil, Jongno-gu, Seoul 110-102, Korea.
Tel: 82-2-3700-3675, Fax: 82-2-3700-3400, E-mail: lsj1109@redcross.ac.kr

투고일 : 2009년 5월 9일 수정일 : 2009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0월 26일

정관념은 이미 타고난 생리학적 성(sex)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Kim, E. Y., 1991) 이미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식의 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Basow(1986)은 성 고정관념을 이루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남여의 특질, 역할, 직업, 신체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여성의 특성을 온정적이고, 양육과 가정에서의 돌봄에 적당하다고 인식하여 이런 특성에 알맞은 유치원 교사, 간호사, 교사 등 서비스 종사직을 여성에게 더 적합한 직업으로 여기고 있고, 남성은 신체적으로 힘이 세고 공격적이며, 기계를 다루는 직업에 적당하다고 인지하여 남성들은 이런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여 왔다(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2007; Kim, E. Y., 1991; Tak, 1995). 그 뿐만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도 대부분 관리업무나 전문적 업무는 남성들에 의해서 점유되어 온 반면, 단순업무는 여성에 의해서 점유되어(GSIS, 2007)왔기 때문에 남성적 직업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 인식이 통용되고 있다(Cho & Cho, 1994; GSIS, 2007; Kim, E. Y., 1991).

간호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특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Tak, 1995), 현재 남자 간호사가 많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환자를 간호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의 간호교육 개혁과 종교적인 측면의 간호가 함께 복합되어 간호는 여성중심의 직업으로 변화되었고 여성의 이미지에 부합되게 되었다(Anthony, 2004). 전통적인 남녀의 성 고정관념은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전문직을 만드는데 제한을 가져왔다. 간호직을 여성에 적합하다고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남자 간호사의 역할을 제한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적 직업으로 성장하는데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는데(Lee, 2003; Pak, 2000), 이것은 성 고정관념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남성은 성 고정관념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Kim, D. I., 1991; Tak, 1995). 어떤 역할을 할 때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적으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성 고정관념에 부합되는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Hong et al., 1998),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은 여성의 사회활동 시 자기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 & Bang, 2003).

기존의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심리학에서 성별에 따른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있고(Kulik, 1999;

Pak, 2000), 간호학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과 성 고정관념과의 관계(Anthony, 2004; Lee, 2004)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하나의 성이 지배적인 조직에서 다른 성을 가진 구성원이 진입하게 될 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역할에 대한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한 개인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조직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yun, 2006). 이에 여성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문과계 전공 여학생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전공에 따른 성역할 인식을 파악하고, 자아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릇된 성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를 비교한다.
-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 나이를 통제하고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비교한다.

3. 용어정의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 사람들이 성에 따라 다르다고 믿는 전형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단일성의 개념이 아니고 몇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성의 개념이다(Basow, 1986). 본 연구에서는 Kim, D. I. (1991)이 작성한 33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선정된 3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부 영역에는 남녀의 지적, 직업적, 가정적, 심리적, 외형적 및 사회적 고정관념 등이 포함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비교하고 자아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서 재학 중이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 중에서 편의 추출하여 간호대학생 305명과 문과계 전공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학 전공자는 총 3개교에, 문과계 전공자는 총 5개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일반적 특성과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나이, 전공,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아만족 (self satisfaction)도는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불만족, 보통, 만족'으로 답하는 것이고, 전공만족 (major satisfaction)도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답하는 것이다.

2) 성 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

Kim, D. I. (1991)이 작성한 성 고정관념 33문항은 성 고정관념의 하위요인으로 '지적 성 고정관념', '직업/외형적 성 고정관념', '가정적 성 고정관념', '심리적 성 고정관념', '사회적 성 고정관념'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 집단에 따라 원도구에서 제시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Pak, 2000), 본 연구에서는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법에 의해 고유가 1 이상인 요인을 확인하여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성 개념상 적절히 분류되지 않은 3문항을 제거한 후 총 30문항,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원 도구의 5개 요인 중 '직업/외형적 성 고정관념'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두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직업적'과 '외형적'으로 분리하였다. 그 외 4가지 요인은 원도구의 요인분석 문항과 거의 유사하였기 때문에 같은 형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지적능력을 나타내는 창의성, 객관성, 유능함, 합리성, 성취욕, 지도력, 수학 적응력 등은 남자가 더 우수하다고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적 성 고정관념'으로, 요인 2는 여성은 단순하거나 친절한 직업을, 남성은 행정직이나 육체적 강도가 센 직업을 선택한다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직업적 성 고정관념'으로, 요인 3은 가사 및 육아 책임은 여성이 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적 성 고정관념', 요인 4는 남성은 권위적이고 공격적이고,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 성 고정관념', 요인 5는 여성은 미모가 우선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외형적 성 고정관념'으로, 요인 6은 의사결정권 및 대를 잇는 것은 남성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적 성 고정관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치는 $r=.41\sim.93$ 범위에 있었고, 총분산은 54.9% 이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D. I. (199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0\sim.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이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3개의 간호대학과 5개의 문과계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수집은 각 대학의 행정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되어진 모든 관련 자료들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노출되지 않음을 설명한 후 이 사항이 명시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중에서 편의 추출하여 수집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총 대상자 425명의 자료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11명을 제외하고 간호학 전공 여학생 300명, 문과계 전공 여학생 11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의 모형선정에 있어서는 주요인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회전 방식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전공별 자아만족도와 전공만족도 및 성 고정관념의 비교는 χ^2 -test,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고, 나이와 자아만족도 및 전공만족도를 통제하고 전공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는 ANC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나이,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 비교

대상자는 서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414명이며 간호학생 중 20세 이하가 137명 (45.7%), 21세 이상인 학생이 163명 (54.3%) 이었다. 문과계열 학생 중 20세 이하는 53명 (46.5%), 21세 이상은 61명 (53.5%)으로 간호대학생이 21세 이상의 학생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자아만족도를 낮다고 답한 간호학생은 47명 (15.7%), 문과계 학생은 21명 (18.4%), 높다고 답한 학생은 간호계 59명 (19.7%), 문과계 30명 (26.3%)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전공만족도는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한 간호학생은 160명 (66.9%)이고 문과계는 80명 (70.2%)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2. 나이,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따른 성 고정관념

전공과 상관없이 나이,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이는 20세 이하의 학생이 21세 이상 보다 성고정관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 = -2.23, p = .026$). 자아 만족도에 따라서는 성 고정관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 = 1.805, p = .166$),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으로 만족하는 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 = 6.850, p < .001, \text{Duncan: very high} < \text{moderate}$) (Table 2).

3.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비교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전체 성 고정관념 평균 점수는 간호학 전공 여학생이 2.20 ± 0.50 점이고 문과계 전공

Table 1. Differences of Age, Self Satisfaction, & Major Satisfac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the Humanities Students (N=4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n=300)		The humanities (n=114)		χ^2	p
		n (%)	n (%)	n (%)	n (%)		
Age (yr)	19~20	137 (45.7)	53 (46.5)	0.023	.88		
	>21	163 (54.3)	61 (53.5)				
Self satisfaction	Unsatisfaction	47 (15.7)	21 (18.4)	3.174	.21		
	Moderate satisfaction	193 (64.5)	63 (55.3)				
	High satisfaction	59 (19.7)	30 (26.3)				
Major satisfaction	Unsatisfaction	18 (6.0)	10 (8.8)	2.879	.41		
	Moderate satisfaction	81 (27.1)	24 (21.1)				
	High satisfaction	154 (51.5)	58 (50.9)				
	Very high satisfaction	46 (15.4)	22 (19.3)				

Table 2. Differences of Gender Stereotype According to Age, Self satisfaction, & Major Satisfactions (N=4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stereotype M±SD	t or F	p
Age (year)	19~20	185	2.11±0.54	-2.241	.026
	>21	218	2.23±0.49		
Self satisfaction	Unsatisfaction	66	2.22±0.54	1.805	.116
	Moderate satisfaction	252	2.19±0.50		
	High satisfaction	84	2.08±0.54		
Major satisfaction	Unsatisfaction	28	2.08±0.49	6.850	<.001
	Moderate satisfaction	102	2.32±0.63		
	High satisfaction	205	2.19±0.47		
	Very high satisfaction	67	1.96±0.44		

*Duncan: Very High < Moderate.

Table 3. Differences of Gender Stereotyp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the Humanities Students

(N=414)

Gender Stereotype	Nursing (n=300)	Humanities (n=114)	t	p
	M±SD	M±SD		
Total	2.20±0.50	2.08±0.55	2.18	.03
Familiar	2.25±0.64	2.12±0.81	1.77	.08
Social	1.61±0.69	1.48±0.68	1.73	.08
Occupational	2.12±0.65	2.13±0.71	-0.18	.86
External	2.92±0.69	2.75±0.76	2.14	.03
Psychological	2.35±0.82	2.19±0.79	1.79	.07
Intellectual	2.03±0.66	1.84±0.71	2.52	.01

여학생이 2.08±0.55점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8, p=.03). 하위 개념 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직업적 고정관념을 제외한 5개 요인에서 간호학생이 문과계 학생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외형적 고정관념 (t=2.14, p=.03)과 지적 고정관념 (t=2.52, p=.01)은 간호학생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3).

4.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와 나이를 통제한 후 전공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와 나이를 통제한 후 전공에 따른 성 고정관념을 비교한 것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전체 성 고정관념의 평균은 나이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제했을 때 간호대학생이 문과계 학생보다 높았으며 유의수준은 경계선상에 있었다 (F=3.840, p=.051). 세변수를 통제했을 때 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은 지적 성 고정관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호대학생이 문과계 학생보다 높았다 (F=5.346, p=.021). 나이는 가정적, 사회적, 외형적, 지적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었고, 전공만족도와 자아만족도는 사회적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었다 (Table 4).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과계 전공 여학생들을 비교그룹으로 두 그룹을 비교하였다. 두 그룹은 나이,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인 차이 없이 동질한 그룹이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변수들에 따라 성 고정관념을 비교해 보았을 때 21세 이상이 20세 이하보다 성 고정관념 점수가 높아서 나이가 많은 경우가 더 남성 우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나이가 21세 이상인 대학생이 20세 이하의 대학생 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음을 나타낸 연구결과 (Pak, 2000)와 같으며, 나이가 들수록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관계에 따라 사회 문화적 기대에 동조하여 수용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아만족도에 따라서는 성 고정관념이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사람이 매우 높은 사람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보통의 만족을 한다는 것은 만족정도가 실질적으로 보통인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공 및 역할을 수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수용하려는 성향은 다른 사회적 관념도 순응하는 성향을 띠며 기존체제에서도 순응하는 성향을 보일 것으로, 이들은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경우는 여성이면서 간호생이라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낮은 성 고정관념 집단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성의 경우 성 구분을 초월하여 사회활동을 편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Lee (2004)의 연구에서 남자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2.7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2003)의 582명의 다른 전공의 남자대학생에게서 나타난 점수 2.8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중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한 남성은 다른 전공을 선택한 남성보다 성 고정관념이 낮으며, 성 구분을 초월하여 직업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여학생의 경우로 유추해보면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학생들은 성 특징적인 직업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였어도 성 고정관념에 구속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Table 4. Comparison of Gender Stereotype with Controlling Major Satisfaction, Self Satisfaction and Age in Two Groups

Gender stereotype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Sig.
Total	Corrected model	4.09	1.021	3.902	.004
	Intercept	79.74	79.737	304.580	<.001
	Major satisfaction	0.82	0.822	3.138	.077
	Self satisfaction	0.25	0.252	0.964	.327
	Age	1.61	1.609	6.147	.014
	Major	1.01	1.005	3.840	.051
	Error	103.41	0.262		
	Total	1995.06			
Familiar	Corrected model	5.23	1.309	2.786	.026
	Intercept	68.17	68.175	145.147	<.001
	Major satisfaction	0.56	0.556	1.184	.277
	Self satisfaction	0.07	0.073	0.156	.693
	Age	3.38	3.377	7.190	.008
	Major	1.17	1.175	2.501	.115
	Error	190.70	0.470		
	Total	2207.08			
Social	Corrected model	15.90	3.976	9.034	<.001
	Intercept	68.50	68.500	155.653	<.001
	Major satisfaction	4.11	4.106	9.331	.002
	Self satisfaction	4.44	4.438	10.086	.002
	Age	3.26	3.260	7.407	.007
	Major	1.08	1.078	2.449	.118
	Error	179.11	0.440		
	Total	1220.50			
Occupational	Corrected model	1.12	0.281	0.629	.642
	Intercept	84.85	84.855	189.856	<.001
	Major satisfaction	1.06	1.061	2.374	.124
	Self satisfaction	0.01	0.008	0.018	.892
	Age	0.00	0.004	0.008	.927
	Major	0.02	0.020	0.044	.834
	Error	180.56	0.447		
	Total	2016.03			
External	Corrected model	5.77	1.441	2.884	.022
	Intercept	119.69	119.690	239.501	<.001
	Major satisfaction	0.35	0.348	0.697	.404
	Self satisfaction	0.00	0.001	0.002	.961
	Age	3.30	3.300	6.604	.011
	Major	1.83	1.826	3.654	.057
	Error	202.90	0.500		
	Total	3595.06			
Psychological	Corrected model	4.31	1.081	1.632	.165
	Intercept	93.94	93.942	142.499	<.001
	Major satisfaction	0.52	0.518	0.786	.376
	Self satisfaction	0.58	0.577	0.876	.350
	Age	0.83	0.835	1.266	.261
	Major	1.81	1.813	2.750	.098
	Error	266.34	0.659		
	Total	2440.24			
Intellectual	Corrected model	5.41	1.353	2.978	.019
	Intercept	57.79	57.786	127.243	<.001
	Major satisfaction	0.10	0.102	0.226	.635
	Self satisfaction	0.24	0.237	0.522	.471
	Age	2.15	2.152	4.738	.030
	Major	2.43	2.428	5.346	.021
	Error	182.11	0.454		
	Total	1767.82			

두 전공 간의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비교했을 때 간호학생들은 2.20 ± 0.50 으로 문과계 학생들의 2.08 ± 0.55 와 비교하여 성 고정관념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 평균점은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서울에서 재학중인 여대생 209명 (Pak, 2000)의 평균 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그에 순응하려는 학생들이 선택하였거나 혹은 입학하고 나서 순응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는 간호는 여성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데에 주목하며, 이 부분이 다른 요인보다도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른 전공 여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간호학생이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 분야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간호학내 집단에서는 여성의 성 고정관념을 굳이 극복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고, 간호학의 배려, 보필, 돌봄이라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성 고정관념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간호학은 거의 대다수가 여성이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비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여학교가 아닌 이상 남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므로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고 여성이나 혹은 남성에게 편파적인 교과과정을 진행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간호학인 경우는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수업 진행 시 오히려 대다수의 여성 사이에서 남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hony, 2004; Lee, 2004).

여러 연구에서 성 고정관념에 영향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이 성 (gender and sex)이었다 (Kim, E. Y. 1991; Kim, D. I., 1991, Kulik, 1999). 간호대학생들 내에서도 성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Lee (2004)의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2.74로 나타나 다른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이지만,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계 여학생들의 2.20보다 높은 성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어 같은 전공이지만 이미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 (sex) 및 사회화된 사회적 성 (gender)이 성 고정관념에 큰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와 나이를 통제하고 두 전공 간 성 고정관념을 비교했을 때 나이는 전체, 가정적, 사회적, 지적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쳤고, 전체 성 고정관념 점수는 간호대학생이 문과계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수준이 경계수준 ($p=.051$)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내용면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로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간호

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다른 문과계를 선택하는 여학생에 비하여 이미 성 고정관념이 높은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성 고정관념이 높은 학생이 입학하였어도 학습현장 자체가 이런 가치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여성이 다수로 모인 간호대학과 같은 집단이나, 남성이 다수로 모인 공과대학 같은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성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 변수를 통제한 후 두 전공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지적 성 고정관념으로서 간호대학생이 문과계 여대생보다 남자가 창의성, 객관성, 유능함, 합리성, 성취욕, 지도력, 수학적응력 등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346, p=.021$).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Tak (1995)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선택한 직업 중에서도 간호사, 유치원교사, 비서, 타이피스트 등이 가장 여성적인 직업으로 선택하였으며, 이것은 남성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여성은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며, 보조역할에 적당하다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에 상응하는 결과였다.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보조적이며, 사회에서 여성에게 낮은 지위를 부여하는 직업에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이와 관련된 자아를 형성할 때에는 자신의 지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정된 자아를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만족도가 사회적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와 Bang (2003)은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보다 자신을 더욱 고정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전통적 사고를 가진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더 고정관념적 시선으로 자신을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은 역할부분으로 38% 설명력이 있었다. 사회적인 역할을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성 (gender)가 남성이며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역할을 수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에 동조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여학생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공정한 평가 및 대우를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지적 성 고정관념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덜 지적이고 비창의적이고 유능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쉽고, 이러한 타당치 않은 고정관념 때문에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일해야 하는 간호조직 내에서 갈등소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새로운 전문직종이 나타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일반적인 사회환경에서도 성 고정관념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간호학이 전형적인 여성성을 보유하고 있는 직업으로 전문직으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Anthony (2004)도 언급하였듯이 한쪽 성에 편향된 모든 성과는 전문직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남성간호사에게 역할을 제공하는데 또한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간호가 돌봄이라는 여성의 역할을 토대로 전문직으로 발전하였지만 간호의 모든 업무가 여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의 여성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Alison, 1999). 여성과 남성의 능력을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애쓰던 예전의 여성주의 시점에서 이제는 성적인 차별이 아닌, 차이는 인정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특성과 다양성이 목적을 향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대부분 여성이면서 다른 분야의 학생들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성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여성자체가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간호 분야의 여성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타 직종과 함께 일하고 대우받을 때 이미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중심의 분야나 혹은 남성이 다수인 분야에서는 동등한 조건과 대우를 요구하기보다는 동등하지 않은 대우 자체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간호학은 여성의 특성을 전문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여성특징적인 노동을 자본으로 전환시킨 분야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로는 아직 간호를 선택하는 여학생들 그리고 현재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간호학을 선택하려 하는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에게도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는 간호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자아만족감과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가 부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객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은 물론 의식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간호대학생들의 수가 문과계 학생들보다 3배나 많아서 비록 나이나 만족도에서는 두 그룹 간 동등하였지만 두 집단의 대표성에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아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평가할 때 총화평정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1개의 문장으로 만족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정밀한 만족정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여학생과 문과계 전공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자아만족도 및 전공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편의 추출하였고, 간호대학생 300명, 문과계열 대학생 11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개월이었고, 자료는 고정관념, 자아만족도, 전공만족도에 관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성 고정관념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6요인 30문항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ANCOVA를 사용하여 나이, 전공만족도, 자아만족도를 통제하고 두 그룹의 고정관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21세 이상의 학생이 20세 이하의 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았고, 전공만족도에 따라 성 고정관념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성 고정관념은 직업적 고정관념을 제외한 5개 요인에서 간호학 전공 여학생이 문과계 전공여학생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혼란변수를 통제했을 때 성 고정관념은 간호대학생이 문과계 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영역은 지적 성 고정관념 이었다.

넷째, 나이는 전체, 가정적, 사회적, 외형적, 지적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었고, 자아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사회적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간호학 전공 여학생에게 자아만족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은 물론 의식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시도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 분야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을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 고정관념 이외에 성역할 정체감 역시 자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의 개념을 조사해 볼 것으로 제언한다.

셋째, 타전문직종과 비교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남자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lison, S. (1999). Hegel's theory of natural sexual relationships. *Women's Philosophy Review*, 22, 34-57.
- Anthony, A. S. (2004). Gender bias and discrimination in nursing education: Can we change it? *Nursing Educator*, 29 (3), 121-125.
- Basow, S. A. (1986). *Gender stereotypes: Tradition and alternations, montrey*. Californi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Cho, U., & Cho, S. K. (1994). *Overwhelm strategy of gender inequality in labor market*.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al Institute.
- Cho, H., & Bang, H. J. (2003). Effects of gender stereotype on explicit and implicit self-constructs of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3), 101-122.
-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GSIS) (2007). Korean Women's Developmental Institute.
- Hong, S. J., Kim, M. J., Kim, A. Y., Kim, H. H., Park, Y. S., Bang, H. J., et al. (1998). *Female Psychology*. Seoul: Gyoyuk Gwahaksa.
- Kim, K. E., Byun, W. S., Mun, M. K., Park, S. M., & Hwang, J. M. (2007). *Next government, Women Family Policy*. 10 Theme, Korean.
- Kim, D. I. (1991). *Gender stereotype of Korean, gender sociology*. Seoul; Muneumsa.
- Kim, E. Y. (1991). *A study on gender stereotypes, the influence of age and education factors on gender stereo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ulik, L. (1999). Gendered personality disposition and gender role attitudes among Israeli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 (6), 736-747.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M. O. (2003). *The study on computer pornography, sex role stereotype, sexual attitude and physical contact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Pak, Y. J. (2000).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sex stereotype and self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Pyun, G. S. (2006). *The effects of gender difference, emotional expression, role stereotype on leadership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Tak, J. K. (1995).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based on sex, sex-role type, and cultur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1), 161-174.